

Online Series

2018. 07. 13. | CO 18-30

왜 비둘기일까?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구축: 평화의 심리학」 연구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단어 3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단어연합검사(word associ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국민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비둘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삶의 방식, 삶의 조건이 아닌 추상적인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공공의 권리,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관계, 폭력, 폭력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폭력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평화 인식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분쟁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비평화적 상황을 평화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는 모순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분단의 삶에 대한 성찰, 법적·제도적 평화 실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평화인식 진화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왜 평화 인식인가?

분단과 6·25전쟁의 길은 그림자 속에서 '평화'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클리셰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분단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의 역사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민간차원까지 남북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합의의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평화 실현 과정의 어려움은 한반도 문제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증오·불신의 문화를 평화적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시민·사회적 노력들, 특히 사람들과 평화의 정신을 공유하는 노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시민·사회적 노력들이 지향하는 평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답을 강요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범적인 목표 상태를 설정하고 사람들의 평화인식을 “견인”하려는 접근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인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목표 상태로서의 평화인식으로 “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연구원은 국민들의 평화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구축: 평화의 심리학」 과제를 진행 중이다. 본 원고는 설문 조사의 일부로 실시된 단어연합검사(word association task)의 결과와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단어연합검사에서는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생각나는 단어 3개가 무엇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국민들이 응답한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표현하였다.



[그림 1] 평화와 연합된 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비둘기이다

응답자가 제시한 3,000단어(1+2+3순위)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이상 언급된 단어¹⁾는 35개이며 1개 이상 언급된 단어는 305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비둘기(389회, 13.0%)였다. 그 다음으로 통일(297회, 9.9%), 자유(210회, 7.0%), 행복(176회, 5.9%)이 많이 언급되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성별, 이념과 관계없이 비둘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통일, 자유, 행복이 그 뒤를 이었다. 20대의 경우 비둘기-통일-행복-자유 순이었다([표 1]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평화의 의미, 평화와 가장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의미가 비둘기와 통일이라는 점은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세 단어 중 가장 먼저 응답한 단어, 즉 1순위 단어에서 더욱 명확해진다([표 1] 세 번째, 네 번째 컬럼). 1,000명의 응답자 중 211명(21.1%)이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응답하였고, 175명(17.5%)이 통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성별,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1]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최빈단어)

1+2+3순위(3000단어)		1순위(1000단어)		Linden 등(2011)(2408단어)	
단어	비율(%)	단어	비율(%)	단어	비율(%)
비둘기	13.0(389)	비둘기	21.1(211)	자유(Freedom)	7.9(192)
통일	9.9(297)	통일	17.5(175)	행복(happiness)	6.4(154)
자유	7.0(210)	자유	8.0(80)	조화(harmony)	5.8(141)
행복	5.9(176)	행복	4.9(49)	사랑(love)	5.4(130)
안정	3.8(113)	안정	3.8(38)	번영(prosperity)	4.8(116)
사랑	2.5(76)	안전	2.8(29)	협업(cooperation)	3.1(76)
편안함	2.4(73)	전쟁	2.7(27)	United Nations	3.0(73)
화합	2.4(72)	사랑	2.6(26)	안보(security)	2.6(62)
안전	2.2(66)	편안함	2.3(23)	평등(equality)	2.4(59)
전쟁	2.0(59)	화합	2.1(21)	전쟁부재(no-war)	2.3(56)
비핵화	1.7(51)	문재인	1.3(13)	민주주의(democracy)	2.3(55)
고요함	1.3(38)	북한	1.3(13)	안정(stability)	2.2(54)
평온	1.3(38)	노벨평화상	1.1(11)	전쟁(war)	1.9(46)

1) Zipf law에 따른 최소 분석 기준. 본 원고에서는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가장 많이 언급된 최빈(最頻) 단어들을 범주별로 묶어보았다²⁾. 그 결과 한국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공공의 권리,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관계, 폭력, 폭력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둘기와 통일과 같은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2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군(群)으로 행복(5.9%)과 사랑(2.5%)이 해당 군에 포함된다(8.4%). 사회적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권리” 범주에 속하는 단어는 자유(7.0%)가 유일했다. 안정(3.8%)과 안전(2.2%)을 포함하는 “물리적 안전” 범주는 6.0%, 고요함(1.3%), 평온(1.3), 편안함(2.4%)이 의미하는 “마음의 평온” 범주는 5.0%였다. 집단 또는 공동체의 “관계” 범주에 대한 단어는 화합(2.4%)이 유일했으며, 전쟁(2.0%)으로 대표되는 “폭력” 범주는 2.0%, “폭력의 부재”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비핵화(1.7%)였다.

최빈 단어가 아닌 1+2+3순위의 모든 단어와 1순위 모든 단어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최빈 단어에 대한 범주화 결과와 유사하였다. 상징적 단어(23.8%)와 통일(9.9%)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긍정적 정서 14.7%, 공공 권리 9.3%, 관계에 대한 단어 7.8%, 사회적 질서 7.2%, 마음의 평온 6.1%, 폭력의 부재 3.7%, 폭력 3.1%, 협상 2.3% 순으로 평화의 의미를 부여하였다[표 2].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한국인의 반응은 보편적인 것일까? 아니면 한국인만이 보이는 예외적인 반응일까? 분단과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인식과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는 과정으로 덴마크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화인식조사(단어연합검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다.

미국인과 덴마크인 812명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단어 연상 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³⁾ 평화를 생각할 때 자주 언급된 고빈도 단어 중 상징적 단어는 없었다.⁴⁾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가 언급된 경우는 24회로 단 1%에 불과했다. 한국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2) 평화가 어떤 의미로 표상되는지에 관심을 둔 선행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구조적, 물리적)폭력 또는 (구조적, 물리적)폭력의 부재, 긍정적 정서, 물리적 안전, 공통의 권리, 집단(개인)의 조화, 경제적 이익, 마음의 평온, 정의, 사회적 질서 등으로 분류해서 연구하고 있다.

3) Van der Linden, Nicolas, Boris Bizumic, Rune Stubager, and Scott Mellon,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7, No. 3, 2011, pp. 217~242. 전체 2,408개 단어 중 14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33개, 1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425개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2,408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다.

4) UN을 상징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UN을 상징에서 제외하였다.

평화를 생각할 때 미국인과 덴마크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Freedom, 7.9%)였으며, 행복(happiness, 6.4%), 조화(harmony, 5.8%), 사랑(love, 5.4%), 번영(prosperity, 4.8%)이 그 뒤를 따랐다. 범주화 결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포함한 ‘공공 권리’에 대한 단어가 1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행복(6.4%)과 사랑(5.4%)의 ‘긍정적 정서’는 11.8%, ‘번영’은 4.8%, 안보와 안정이 의미하는 ‘사회적 질서’가 4.8%, ‘관계’에 대한 단어가 8.9%였다(조화: 5.8%, 협력: 3.1%). ‘전쟁’은 1.9%였으며 ‘전쟁의 부재’는 2.3%로 나타났다([표 1]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컬럼).

[표 2] 전체 단어에 대한 범주화 결과

	1+2+3순위(300)	1순위(1000)
상징		
- 비둘기, DMZ,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노벨평화상, 올리브, 올림픽, 판문점, 자연 등	23.8(713)	29.4(294)
긍정적 정서		
- 기쁨, 따뜻함, 미소, 부드러움, 사랑, 아름다움, 안락, 여유, 즐거움, 행복	14.7(440)	10.4(104)
통일	9.9(297)	17.5(175)
공공 권리		
- 노력, 민주주의, 인권, 자유, 정의, 평등 등	9.3(279)	9.4(94)
관계에 대한 단어		
- 가족, 공존, 대화, 믿음, 소통, 이해, 존중, 한민족, 협력, 화합, 화해 등	7.8(234)	5.2(52)
사회적 질서		
- 안보, 안심, 안전, 안정 등	7.2(217)	7.1(71)
마음의 평온		
- 고요함, 잔잔함, 편안, 평온 등	6.1(183)	4.4(44)
폭력의 부재		
- 갈등부재, 걱정부재, 비핵화, 전쟁부재, 휴전 등	3.7(112)	2.6(26)
폭력		
- 6·25, 전쟁, 이산가족, 핵 등	3.1(94)	3.6(36)
협상		
- 남북대화, 평화협정, 협상, 정상회담, 회담 등	2.3(70)	2.3(23)

표본의 수와 구성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연구 시기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Linden 등이 전체 단어가 아닌 14개 이상 언급된 최빈 단어들(전체 단어의 70% 수준)만 공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Linden 등의 연구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차이점을 본다면 첫째, 한국인들은 미국인과 덴마크

국민들에 비해 평화를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번영의 측면에서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인과 덴마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번영은 5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경제적 번영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단어(경제, 돈, 번영, 풍요, 살기 좋음 등)는 3,000개 단어 중 36개, 즉 1.2%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미국인과 덴마크 국민들에 비해 마음의 평온을 평화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국인과 서구인의 평화인식의 유사점 역시 존재한다. 한국인이 언급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의 비중이 다소 크긴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공공의 권리와 긍정적 정서를 평화의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뒤를 사회적 질서와 관계에 대한 단어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폭력, 폭력의 부재에 해당하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덴마크 국민과 미국 국민의 평화인식 차이를 분석한 Linden의 분석에 의하면 전술한 차이점을 제외한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덴마크 국민보다는 미국 국민의 평화 인식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로운 분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순적 평화 인식

평화를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갈등이 고질화·일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분쟁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했거나 평화적 합의를 위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상태가 적어도 한 세대(25년) 이상 지속된 분쟁을 고질화된 갈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고질화된 갈등 속에서 출생·성장한 세대는 적대집단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포함한 분쟁의 삶이 일상화되었으며 분쟁 속에서의 삶 이외에 다른 삶을 알지 못한다.

고질화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집단은 평화를 공동체의 목표로 설정한다. 분쟁이라는 암흑 터널 속에서 평화는 터널 끝을 암시하는 목표와 상징으로 작동한다. 구성원에게 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희망을 제공하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과정이 생략된 목표로서의 평화는 실체가 없으며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하다. 삶과 유리되어 있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한국인들에게 평화가 비둘기인 이유이다.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속에서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된 공동체가 생각하는 평화인식에서 ‘폭력’과 ‘폭력의 부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결과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모순들, 소위 “분단 폭력”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평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평화 상태는 “비정상”의 삶이 아니라 “정상적”, “일상적” 삶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비평화’가 status quo가 된 것이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다’⁵⁾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 분단과 분쟁으로 왜곡된 삶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일상성의 특징은 불편함,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비평화적 삶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 평화의 삶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 왜곡된 삶 그러나 평화롭다고 느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로운 비평화, 비평화의 일상화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막아서는 방식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평화를 가로막는 분쟁의 한복판에서 생활하면서 분쟁의 삶을 평화롭게 영위하는 모순적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이념 등 주요 변수 별로 평화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국인의 모순적 평화관이 특정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상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평화로운 비평화상태, 비평화 상태의 일상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삶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라는 사회적 자각부터 시작해야 한다. 분단이 왜곡시킨 사회적·개인적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평화의 삶을 위해 분단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문화를 위한 출발점이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평화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개인적 사회적 덕목들을 나열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강요한다면 현실과 유리된 평화, ‘비둘기의 평화인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평화의 삶은 내일의 삶이 아닌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 분단의 삶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전환기의 삶에서 평화의 의미, 평화의 조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5)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2018년 5월 27일)’,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440>

하지만 비평화상태의 일상성에 대한 고민이 분단으로 인한 삶의 왜곡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반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 악마화, 안보지상주의, 집단주의, 군대문화, 다원성에 대한 무관용 등 분단의 왜곡된 삶은 분쟁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생존,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그리고 폭력이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적응기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분단으로 인한 삶의 왜곡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변화의 방향을 긴 호흡에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공동체를 위한 출발이 흑백논리에서 시작된다면 평화가 아닌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올 것이다. 평화는 과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제도적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분쟁을 시작했던 이유 역시 종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쟁의 삶을 이끌었던 근본 원인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분쟁의 삶, 분단의 삶을 진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분쟁 국가들이 정치적·제도적 평화를 합의한 후에 다시 전쟁을 시작한 역사적 사례들은 부지기수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제도적 평화는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적 평화의 실현은 평화인식 변화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정치적, 제도적 평화 실현 과정에서 국민들은 현실의 삶에서 평화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정치적, 제도적 평화는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실현된다. 협상이란 무엇인가? 나의 필요와 상대의 필요를 논의하는 것이다.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적대적 집단을 인정하는 경험, 인정해야만 하는 경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화인식에 협상과 관련된 의미들이 10번째로 많다는 것은 현재의 경험이 어떻게 평화인식을 변화시켜주는지를 대변한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화의 정의만큼이나 평화 교육의 정의도 다양하다. 갈등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 평화교육의 내용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화체제 이전의 평화교육과 평화체제 이후의 평화교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리고 달라야 한다. 보편적 가치와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한 평화교육이 유효한 맥락이 있으며 분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평화교육이 유효한 맥락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토피아를 강요하거나 평화의 당위성을 강요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분단 삶의 일상성, 평화 전환기의 역동성을 포괄하는, 그리고 오늘의 삶에 기반한 평화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